



간추린 청렴 소식

[1] 대검, '2022년 부패방지교육 실적' 권익위 제출

대검찰청 감찰부는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2022년 한 해 동안 각 청에서 실시한 '부패방지교육 실적'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신규자, 승진자에 대한
대면교육은 필수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2] 대검, '2023년 자체청렴도 측정 계획' 송부

대검찰청 감찰부는 청렴시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 청 모니터링을 통한 검찰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2023년 자체청렴도 측정 계획'을 전국청에 송부하였습니다.



각 청 청렴업무 담당자분들! 올해도 하이팅입니다^^

[3] 고양지청, '공간, 색을 입다' 전시회 개최

고양지청은 흥익대학교와 함께 소속직원들의 작품을 포함한 미술 전시회(공간, 색을 입다)를 개최하여 청렴 의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외부에서 생각하는 검찰의 청렴에 대해
재고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4] 안산지청, '9개 언어의 민원 업무 안내서' 비치

안산지청은 내·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총 9개 언어의 민원 업무 안내서'를 제작하고 종합민원실에 비치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검찰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시각화된 민원 정보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과
인권보호 등 1석 多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2022년도 자체청렴도 측정결과

대검찰청 감찰부는 전국 59개 지검, 지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자체청렴도' 그룹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룹	대상	우수 청
1그룹	7개 지검	대구지검
2그룹	5개 지검	서울동부지검
3그룹	6개 지검	울산지검
4그룹	10개 지청	대구서부지청
5그룹	15개 지청	포항지청
6그룹	16개 지청	장흥지청

국민이 믿고 함께하는 청렴한 검찰이 되기 위해
2023년에도 청렴 실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읽고, 느끼며

생각해보기 인생 명언

당신은 좋은 사람 입니까?

영화 '증인' 中

엄마, 나는 증인이 되고 싶어.
나는 글도 잘 쓰고, 책도 잘 읽지?
그렇지만 변호사는 되지 못할 거야.
나는 자폐가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은 될 수 있어.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이 영화는 자폐를 가진 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일반인들의 자폐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증인이 되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자폐아라는 편견으로 인해 그조차도 쉽지 않은 주인공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편견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듣고 믿어준다면 세상은 조금 더 밝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요.

청렴 상식이 쑥쑥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조선시대의 청탁금지법?! '분경금지법'!!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조선시대에는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분경(奔競)은 분추경리(奔趨競利), 즉 바쁘게 다니며 이익을 다룬다는 뜻에서 비롯된 말로 벼슬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해 권세가 높은 집을 분주하게 찾아다니며 청탁하는 풍습을 이야기합니다.

분경금지법의 시초는 1399년(정종1년) 하급관리가 상급관리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으로 역울한 일이 있으면 소속 관서에 고하되, 비밀리에 만나 남을 모함하지 말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사헌부에서 규찰하여 귀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 성종 때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습니다.



사불삼거(四不三拒)

- ▶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 부업 금지
 - 땅 매매 금지
 - 집확장 금지
 - 부임지 특산물 금지
- ▶ 거절해야 할 3가지
 -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 거절
 - 청을 들어준 것의 답례 거절
 - 경조사에 부조 거절

조선시대에도 공직자의 덕목으로 청렴이 강조 되었으며 이를 어겼을 시 형벌에 처했다는 사실은 '청렴'의 가치는 시대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부정부패 방지 노력에서 청렴한 공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 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운 경우, 직무상 비밀 등이란 정보의 출처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 ① O ② X

※ 힌트 : Monthly청렴 2023년 2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 응모기간 : 2023. 3. 24.까지
-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2월 정답은 ③ **하마비**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축!
당첨**

이00(서울중앙), 김00(의정부), 배00(대구),
조00(경주), 이00(서울중앙), 박00(천안),
김00(부천), 형00(광주), 이00(청주), 조00(외부)

민원인의 목소리

복사기 고장으로 복사가 안되는 상황에서 직원분이 다른 복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서 신속하게 열람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만족합니다.

천안지청 열람등사(재판중) 담당 직원의 친절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민원인 의견이었습니다 ♪

등사 신청하러 갈 때 안내시스템이 잘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접수, 등사, 열람 등 담당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민원 업무 환경을 개선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요!

청렴,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게